****

**선교 활동 보고**

**인도에서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

루이빌 -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지만, 인도 달리트 계급 여성들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리트는 산스크리트어와 힌두어로 억압되거나 파손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달리트는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과 사원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며, 상위 계급이 버린 식품을 가져와야 할 때도 있고, 교육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렸던 달리트 계급의 여성은 인도 여성 인구의 거의 16%에 달하며, 성적 편견 뿐 아니라 카스트에 기반을 둔 차별과 경제적인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스미싸 크리슈넌에게 이 잔인한 계급은 일상이었습니다. 인도에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 남편이 사망했고, 숙련된 재봉사인 스미싸는 가족 생계를 혼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잃었을 뿐 아니라, 진흙과 풀로 지은 집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계를 꾸릴 유일한 수단이었던 재봉틀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낡은 재봉틀이 망가지고, 남편의 죽음으로 혼자 다섯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면서, 저와 아이들의 삶이 극도로 힘들어졌습니다”고 했습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https://pda.pcusa.org/)(PDA)이 '농촌 개발을 통한 나라 통합협회(SNIRD)'에 기타 생필품과 더불어 머물 곳과 재봉틀을 지원한 덕에, 스미싸와 가족은 보다 희망찬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SNIRD는 비정부 조직으로서 인도 사람들이 자연 재해와 인재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donate/og300000/)을 통한 장로교 헌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관대한 헌금 덕분에, 수천명이 쓰나미, 홍수,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헌금의 목적은 전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 아니라,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hunger/)과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 장로교 위원회'](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sdop/)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IRD와 PDA의 협력은 구조적 인종차별을 해체하고 만연한 빈곤을 뿌리뽑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태복음 25장 사역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스미싸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에 내어주신 헌금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영구적이고 재해에도 끄떡없는 보호소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저는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고, 아이들이 아플 때 약도 챙겨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과 SNIRD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에 헌금하는 분들께 많은 것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에 여러분의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드리면, 결국 많이 모이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

*저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와 헌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적게 가진 자들과 홍수, 기근,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을 돕게 해주소서. 저희가 삶과 이 헌금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